

전남 완도·해남에서 지역 소비진작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현장 방문
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, 전남 완도군 지역 소비진작 현장과 해남군 마을기업 방문
- 현장 방문에 앞서, 「제6회 섬의 날」 기념식 참석
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8월 9일(토), 전라남도 완도군과 해남군을 방문하여 지역 소비진작 사업 및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,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먼저, 김민재 차관은 ‘완도치유페이’ 현장안내소를 방문해 관광객 대상 지역소비 진작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, 인근 건어물 및 수산물 판매소를 찾아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시행에 따른 매출 변화와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.
-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완도 내 숙박·식음·특산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고 인증을 완료하면, 최대 20만 원까지 완도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이나 청정마켓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, 올해 6월까지 약 9,300여 팀이 참여해 33억 원의 지역소비를 이끌어냈다.
- 김 차관은 완도군의 치유페이 사업은 관광소비를 지역상권 회복으로 연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다.
- “정부는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,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”라며, “지자체도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나 보완사항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달라”고 덧붙였다.

- 다음으로, 김민재 차관은 해남군 마을기업 ‘비슬안’을 방문해 유기농 쌀 생산·가공과 농촌체험관 운영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.
- ‘비슬안’은 2020년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으로,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돌봄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.
 - 최근 국회 「마을기업법」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침으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에 대한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.
 - 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·청년마을기업 등에 대한 우대 조항을 담고 있으며, 지정·지원체계도 법제화되었다.
 -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,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 - 김 차관은 마을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“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, 풀뿌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김민재 차관은 전날인 8월 8일(금)에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‘제6회 섬의 날’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.
- 기념식에는 완도군수,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섬 지역 자치단체장 및 주민 등 1,5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김 차관은 축사에서 “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마련하였으니, 많은 분이 완도를 찾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주무관	라세화 (044-205-3105)
<섬의 날>	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	책임자	과장	박중근 (044-205-3501)
		담당자	주무관	김남미 (044-205-3523)